

:  
:

정혜주(한양대)\*

인천 공항을 날아 올라, 태평양을 건너고, 복잡한 로스앤젤레스 또는 밴쿠버 공항을 거쳐, 땅에 닿을 듯이 가까이 보이는 멕시코 시티 공항에 도착하여,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동쪽으로 가면 비취 빛의 카리브(Caribe) 해가 눈에 들어온다. 갑자기 한증막 속으로 들어온 느낌을 받으며 켈쿤(Cancun) 공항에 내려서 또 다시 버스를 타고 약 2시간 정도 달리면 광활한 녹음 속에 우뚝 서 있는 장방형의 피라미드가 앞을 가로 막는다. 치첸 이싸(Chichen Itza)의 쿠쿨칸(Kukulcan) 신전이다. 신전 자체의 독특한 모양도 강렬한 인상을 주지만, 천체의 움직임에 따라 춘 추분에 생기는 그림자 현상을 보게 되면 경외감 마저 든다. 주위의 다른 건물들: 전사의 신전(Templo de los Guerreros), 탁자(La Mesa), 천의 열주(Mil Columnas), 성스러운 샘(Cenote de Sacrificio), 구기장(Juego de Pelota), 대사제의 신전(Osario), 천문대(Observatorio), 수도원(Las Monjas), 채색된 집(Casa Colorada), 아캅 집(Acab Dzib), 팔로 신전(Templo de los Falos), 세 대들보의 집(Tres Dinteles), 상형문자의 집(Jambas Jeroglificos), 등등.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가 되도록 비 오듯 흐르는 땀을 나무

---

\* Hea-Joo Chung, Hanyang University, “La historia de la civilización maya en A Forest of Kings: The Untold Story of the Ancient Maya y Maya: Divine Kings of the Rain Forest.”

그들에서 닦으며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면 끝없이 이어지는 석조 건물들과 그 건물들의 다양한 구조와 부조들의 문양에 감탄과 누가, 왜 이런 일들을 하였을까 하는 자연스러운 궁금증이 난다. 박물관에 들어서 시원함을 즐기며 조금 느긋이 토기와 부조, 벽화의 그림들을 살펴보다 옆에 붙어 있는 서점으로 발을 옮긴다. 크고 작은, 얇고 두꺼운, 유적지를 소개하는 단편적인 안내 책자의 홍수 속에서 『왕들의 숲: 고대마야의 안 알려진 이야기』(*A Forest of Kings: The Untold Story of the Ancient Maya*)” 라는 제목이 우리의 눈길을 잡는다. 돌의 산과 엉켜진 잡목 사이에 감추어진 이 하얀 석조 도시들의 이야기가 그 속에 있다.

마야 문명은 독특한 건축 구조와 더욱 특이한 미적 감각의 부조들을 발전 시켰다. 화려하기도 하고 그로테스크하기도 한 이 장대한 미술품들은 이 문명을 파괴한 정복자 자신들에게도 궁금증과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서 기록을 남기게 하였다. 에스파냐의 신부들과 군인이 남긴 기록을 보고 존 로이드 스티븐슨(John Lloyd Stevenson)은 열대의 밀림 속에 버려진 이 유적들을 찾아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프레데릭 캐서우드(Frederik Catherwood)라는 당시에는 (현재도 크게 다를 바 없겠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색다른 예술적 개념의 유적을 훌륭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은 그의 행운이었다. 두 사람이 탐사하고 그림으로 남긴 기록은 훗날의 사람들에게 마야 문명이라는 미지의 세계로의 문을 활짝 열었다.

마야 문명의 유적지는 멕시코(Mexico)의 유카탄(Yucatan) 반도 북쪽에서부터 벨리세(Belize), 과테말라(Guatemala), 온두라스(Honduras)까지 계속된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열대의 숲은 더욱 깊어지고, 숨이 막히는 습기와 후덥지근한 열기로 가득 찬 이곳을 빈틈없이 하얀 석조 건축물로 가득 채운 마야 사람들에게 더욱 놀라는 마음이 가득해진다. 그들이 이렇게 많은 건물들과 부조와 비석을 남기면서 아무런 글을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궁금증을 채

우지 못해 화가 났을 것이다. 다행히 그들은 수메르의 썩기 문자, 이집트 문자, 인더스 문자, 중국 문자를 남긴 세계의 다른 거대한 고대 문명들처럼 그들의 문자를 남겼다. 회르스테만(E. Forstemann), 프로스코우리아코프(T. Proskouriakoff), 베를린(H. Berlin), 노로조프(Y. Knorozov) 등, 마야 문자 해독의 선구자들은 이들이 남긴 비문이 날짜와 왕들의 태어남과 죽음, 그들의 업적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 내었다. 이로부터 1990년까지 해독된, 마야 사람들이 남긴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 바로 『왕들의 숲』이다. 린다 쉘리(Linda Schle)는 미술을 전공하였으나, 신전마다 상형문자와 부조로 뒤덮힌 벽들이 있는 팔렌케를 방문했다가 비문 해독에 빠졌고 데이비드 후리델(David Freidel)은 고고학자로서 해석에 참여했다. 두 사람은 고고학적 유물과 유적들이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비문에서 찾아내었다.

그들은 팔렌케(Palenque)의 비문에서 마야 사람들의 첫 아버지가 옥수수의 신으로 기원전 3122년 6월 16일에 태어났고, 첫 어머니는 기원전 3121년 12월 7일, 옥수수의 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자리 잡게 되는 날은 기원전 3112년 2월 5일로 기록된 것을 찾았다. 그러나 마야 사람들이 그들의 세계를 시작한 성스러운 시간은 기원전 3114년 8월 13일임을 키리구아(Quirigua)의 비문에서 말하고 있다. 이로써 신이 마야 세계를 창조하고 나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고고학적으로 마야 사람들이 벨리세의 쉼로(Cerro)에 마야 문명에서 최초로 여겨지는 피라미드를 세운 것은 약 기원전 50년경이다. 그들은 피라미드의 계단 양쪽으로 셋별과 해의 부조를 조각하고 꼭대기에는 집을 지어 왕이 셋별과 해의 운행을 관찰하고 별들의 운행을 상징적으로 되풀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왕들은 별들이 된 신들의 자손으로 천체의 움직임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다. 셋별은 비의 신으로 해석되는 틀랄록(Tlaloc, 메소아메리카 문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마야에서는 차크 Chaac로 알려져 있다)의 상징이었으며 셋별의 움직임에 따라 왕위 계승과 전쟁 등의 나라의 중요한 일이 결정되었다. 마야는 농경

사회였다. 셋별은 해와 달 이외에 맨눈으로 가장 쉽게 관측되는 별로서, 아침과 저녁에 볼 수 있으나 궤적에 따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간이 있다. 셋별이 비의 신의 상징이 되는 것으로 보아 이 별의 움직임과 농사에 관계되는 날씨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마야 사람들은 이 실질적인 자연현상을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상징 체계로 발전 시켰다. 그들은 별들의 정렬, 일식과 월식, 혜성과 유성이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였고, 특히 셋별이 보이지 않는 기간에는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하였다.

세로(Cerro)에서 시작된 피라미드는 과테말라의 우악삭툰(Uaxactun)에서 더욱 발전되었다. 우악삭툰의 가운데 세워진 피라미드 이외에도 해와 달, 셋별이 뜨고 지는 위치에 또 다른 피라미드들이 세워져 빛이 없는 날에도 별들의 움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천문을 연구하며 발전하던 우악삭툰은 좀 더 남쪽의 신흥 국가 티칼(Tikal)로부터 도전을 받았다. 티칼의 시조는 약스-모-속(Yax-Moch-Xoc)으로 기록되어 있다. 연기나는-개구리(Smoking-Frog)는 티칼의 지도자로서 우악삭툰을 성공적으로 침입하였다. 또한 그는 셋별-틀랄록 전사로서의 상징적인 옷을 입고 있었다. 연기나는-개구리는 티칼의 왕이 된 적은 없었으나 그의 조카로 짐작되는 천둥치는-하늘(Stormy-Sky)은 왕(아하우Ajaw라 불림)으로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였다. 그는 8.18.15.11.0, 기원후 411년 11월 27일에 일어난 목성-토성-금성의 정렬을 기록하는 등, 그의 주요한 움직임은 별들의 움직임과 함께 기록되었다. 이리하여 “별들의 전쟁”이라 불리는 마야 도시국가들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확장하는 티칼을 저지하기 위해 도스 필라스(Dos Pilas)와 북쪽의 칼라크물(Calakmul)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왔다. 티칼은 약스칠란(Yaxchilan)과 보남팍(Bonampak)과 동맹을 맺고 반격하였다. 이에 도스 필라스는 나랑호(Naranjo)와 칼라크물, 멀리 코바(Coba)까지와도 연합하여 대항하였다. 결혼을 통하여 나라끼리 동맹을 맺어, 쳐들어가고, 밀리고, 다시 쳐들어가는 별들의 전쟁은 기원후 700년에서 900년 사이에 절정을 이루었다. 각각의 도시 국가들은 그들 고유의 문장

(emblem glyph)을 사용하였다. 전쟁 포로들은 성대한 제례의식을 통하여 희생하였다. 그들의 희생은 천체의 움직임을 정상화하는 데에, 왕의 즉위를 신성화하는 데에, 태어난 왕자를 인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제례의식을 행하기 위한 구기장(Juego de pelota)은 모든 도시에 세워졌고 비문을 새김으로써 기록을 남겼다. 다른 한편, 정복된 국가로부터 공물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긴 자도 진 자도 없는 끝없는 전쟁은 마야 사회를 경제적으로 황폐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쟁으로 피폐되고 있는 페텐(Peten)의 열대 우림을 떠난 종족도 있었다. 이싸(Itza)족이 그들인데, 그들은 유카탄의 북쪽 평원에 또 다른 국가를 세웠다. 치첸 이싸(Chichen Itza)라고 불리는 이 도시국가는 네 사람의 다른 지도자가 함께 이끄는 몰테팔(multepal)이라는 제도로 이곳에 몰려든 다양한 종족을 규합하고 제국으로서의 길을 열었다. 쿠쿨칸(Kukulcan, 날개-뱀) 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국을 이루고자 하였던 이들의 꿈은 토착민을 대표하는 우나켈(Hunacel)의 반란으로 끝이 났다. 마야 사람들의 마지막 흔적은 다시 페텐(Peten)의 이싸(Itza) 호수 근처의 타야살(Tayasal)에서 발견되었다.

린다 쉘리와 데이비드 후리델은 길고 복잡한 마야의 역사를 현대의 언어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야 글자로 된 비문과 현대 영어를 나란히 배치하여 쉽게 비문의 해독에 접근할 수 있다. 더욱이 그들은 비문과 함께 있는 부조의 해석에 큰 힘을 기울였다. 그들은 왕이 입고 있는 옷과 장식의 의미를 설명하였고 피를 흘리는 희생의식으로 대표되는 제례의식의 상징들을 드러내었다. 또한 왕들의 업적의 한 칸에 놓여진 별들의 이야기를 찾았고, 별로 신화화된 왕가의 계보를 만들었다. “왕들의 숲”은 전혀 이해되지 않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마야의 역사를, 신을 위하여 살았던 인간들의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만들었다.

『왕들의 숲』은 비문해독이 중심이 된 책이다. 추측이 약간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마야 문명의 다른 면모는 많이 삭제되었다. 린다 쉘리를 잇는, 현재 가장 활동이 왕성한 비문학자의 하

나인 니콜라이 그루브(Nikolai Grube)에 의해 편집된 『마야: 비 오는 숲 속의 신성한 왕들 (Maya: Divine Kings of the Rain Forest)』은 『왕들의 숲』에서 다루지 못한 많은 마야 문명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우선 큰 책의 체재 덕분에 현장에 있는 듯이 선명한 유적의 사진들이 눈에 들어온다. 유적 전체의 사진(고공 사진) 또는 평면도(설계도)를 그리고, 각각의 건물 사진을 주위에 배치하여 한 눈에 유적지의 구조를 볼 수 있게 한 점도 기존의 많은 책과 다른 점이다. 토기의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가 하면 건축 구조의 다양성과 발전 단계도 도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쟁에 따른 복잡한 도시 관계를 시대 별로 나누어 지도로 나타냄으로써 변화하는 상황이 한 눈에 들어온다. 고전기 신들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말기에 동굴에서 이루어진 의례의 모습도 자세히 나타나 있다. 그리고 고고학적인 책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는 식민지 시대의 모습과 현재의 마야 사회도 상당 부분 다루고 있어 그야말로 마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마지막에 덧붙인 시대별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그려진 도해는 복잡한 사건들을 선명하게 정리해준다.

이 책의 전반부는 마야 문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자연적 배경을 보여준다. 화산재가 뿌려진 정글은 비옥한 토양으로 주식인 옥수수, 라임, 카카오 등의 열대 작물을 풍부하게 공급 하였다. 옥수수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먹고 숲 속의 동물들과 우수마신타(Usumacinta) 강과 수많은 작은 호수들로부터 물고기와 조개들을 잡았다.

우수마신타 강의 하구에서 일어난 올메카(Olmeca) 문명은 바로 마야의 비 오는 숲, 페텐에 전해졌고, 멕시코 고원에서 일어난 테오티우아칸(Teotihuacan) 문명은 마야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 자극을 주었다. 테오티우아칸 스타일은 형성기의 마야의 도시 국가인 카미날후유(Kaminaljuyu)의 부조와 벽화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고 그 후에도 중요한 상징 문양으로 쓰였다. 도시의 발전에 따라 건축 구조는 단순한 피라미드에서부터 여러 층의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진 피라미드형 복합 건물로 바뀌었고, 지역에 따라 채규어의 얼굴, 비의 신 차크의 모습, 지하 세계의 입구를 묘사한 것 등 매우 다양한 장식을 보였다. 과테말라의 서부 해안과 중앙에 이르는 초기 마야 문명의 토기들은 “별들의 전쟁”이 퍼졌던 고전기 마야의 토기들과는 전혀 달리 매우 단순하고 기능적이었다. 고전기에는 동물을 묘사한 현란한 모양의 토기와 채색된 토기는 영웅 쌍둥이의 모험, 옥수수 신의 탄생, 신들의 회의, 상인들의 방문 등, 다양한 주제를 화려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창조신 이참나(Itzamnaaj)와 태양신 키니치 아하우(K'inich Ajaw), 죽음의 신 키미(Kimi) 등, 별과 관련되지 않은 다양한 신의 모습도 흙으로 만든 인형이나 그림으로 볼 수 있고, 신화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키리구아(Quirigua)의 비문에는 13.0.0.0 4 아하우(Ajaw) 4 쿨쿠(Kumku), 기원전 3114년 8월 13일에 형상이 스스로 나타나고 세 개의 돌이 놓아지며 세계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세 개의 돌이 놓아진 후, 중심에 세계 나무(Wakah Chan)가 놓여졌다. 하늘과 달력이 세워졌고, 세계는 네모진 땅으로 표현되었다. 이들 신에게 다양하게 피를 바치는 의식, 정신적 희생 제의를 표현하는 향료들이 있다.

치첸 이싸로 대표되는 후기 고전기는 전형적인 고전기 마야의 화려하고 다양한 모습이 멕시코만과 고원 지대의 다른 문명의 특징과 함께 어우러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각기 다른 부족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부조에 나타나고, 전혀 마야적이지 않은 풍경도 벽화에 그려져있다. 툴룸(Tulum)과 산타 리타 코로살(Santa Rita Corozal)에서 메소 아메리카 최후의 문명인 믹스테카(Mixteca)의 요소와 섞인 모습을 보이며 고대 문명으로서의 마야의 이야기가 끝난다.

『마야』는 다양한 전공의 필자들이 전문인들보다는 일반적인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쓰였다. 발굴물의 해석을 중심으로 마야 문명의 시작부터 전기 고전기, 고전기, 후기 고전기의 특징을 건축, 토기, 비문을 예를 들며, 『왕들의 숲』 처럼 극적인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지는 않으나 선명한 사진과 설명적인 도해로 오히

려 우리를 쉽게 마야문명의 세계로 안내한다. 이 책의 유일한 단점은 대부분 고고학적 유적과 유물을 다루면서 전문적으로 현장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의 글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도, 발굴의 결과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고고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왕들의 숲』과 『마야』는 영어로 된 책으로 원문이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되어 있지는 않다 (서점에 수입은 되었다). 그러나 읽는 사람들은 저절로 필자들을 따라가며 마야 문명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무엇인가를 이해한듯한 마음으로 책을 덮게 된다.

## Abstract

*A Forest of Kings y Maya* son libros excelentes para entender los monumentos mayas enigmáticos. Los dos libros narran los eventos escritos por jeroglífico: el significado de los relieves grotescos de los pirámides, autosacrificio de los reyes y reinas, las fechas de nacimiento, la Guerra. También tiene información del medio ambiente, de las cerámicas y de la cronología, desde Preclásico hasta actual.

Key Words: Maya civilization, A Forest of Kings, Maya / 마야 문명, 왕들의 숲, 마야

논문투고일자: 2003. 5. 11

게재확정일자: 2003. 5. 17

- Schele, Linda & David Freidel(1990), *A Forest of Kings: The Untold Story of the Ancient Maya*, New York: Quill William Morrow.
- Grube, Nikolai eds.(2000), *Maya: Divine Kings of the Rain Forest*, Germany: Konemann.
- Coe, Michael D.(1992), *Breaking the Maya Code*, Thames and Hudson Inc..
- Freidel, David, Linda Schele & Joy Parker(1993), *Maya Cosmos: Three Thousand Years on the Shaman's Path*, New York: Quill William Morrow.
- Schele, Linda & Mary Ellen Miller(1986), *The Blood of Kings: Dynasty and Ritual in Maya Art*, Thames and Hudson Inc..
- Schele, Linda & Peter Mathews(1998), *The Code of Kings: The Language of Seven Sacred Maya Temples and Tombs*, New York: Scribner.